

홍상삼 “KIA 마운드 활력 내가 지킨다”

지난달 27일 지각 등판 행운의 승리투수 ... 29일엔 홀드 기록
“동생들이 잘해 난 보조역할에 만족” 젊은 마운드에 조연 자처



삼의 역할이 중요하다.

베테랑의 가치는 위기에
서 발휘된다. 그라운드 안
에서보다 밖에서 더 베테
랑의 역할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래서 KIA 타이거
즈의 젊은 마운드에 홍상
삼의 역할이 중요하다.

KIA는 올 시즌 자의 반 타의 반 ‘젊은 팀’이 됐
다.

야수진에서는 나지안, 최형우, 류지혁 등 주축 선
수들의 부상 이 이어지면서 강제 리빌딩이 진행됐
다.

다행히 베테랑의 부상 속 기회를 받은 야수진들
이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성장세를 보였다.
‘주장’ 나지안과 ‘최고참’ 최형우가 빠진 자리에서
‘임시주장’ 나주환이 턱아웃의 중심이 됐다.

벤치를 지키는 시간이 더 많았지만 후배들에게
“우리가 나이 어리다고 상대에게 무시당하지 말자”
는 주문을 하면서 턱아웃 분위기를 이끌었다.

그리고 최고참 최형우가 돌아오면서 경험을 더한
타선은 한층 탄탄해졌다.

1일 대타로 복귀전을 치른 최형우는 2일 4번 타
자 겸 지명 타자로 나서 자신의 부상 공백 속 성장
한 5번 이정훈과 클린업 트리오는 구성했다.

최형우는 병살타도 기록했지만 결승타 주인공이
됐고, 이정훈도 2타점을 올리는 등 ‘신구조화’ 속
시너지 효과가 났다.

이제 KIA 불펜에 시선이 쏠린다.
마운드도 부상과 부진이 겹치면서 지난해와 전혀
다른 선수층이 구성됐다.

마무리 전상현이 부상으로, 지난 시즌 필승조로
역할을 한 사이드암 박준표와 좌완 이준영은 부진
으로 자리를 비웠다.

브룩스를 제외하고 현재 1군에 등록된 KIA 투수
11명 중 데뷔 시즌을 보내는 선수는 ‘루키’ 이의리,
장민기, 이승재와 함께 ‘에비역’ 윤중현 등 4명이나
된다. 마무리 정해영도 이제 2년 차. 김유신, 서석

원도 사실상 신인이나 마찬가지다.

‘말뚱’ 홍상삼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지난해 KIA에서 새로운 야구 인생을 열었던 홍
상삼이지만 올 시즌은 출발이 늦었다.

홍상삼은 맹텐이 부상으로 빠진 5월 26일 처음 1
군에 등록됐고, 27일 1-4로 뒤진 6회초 2사 만루
위기에서 키움을 상대로 시즌 첫 등판을 소화했다.
그리고 박병호를 우익수 플라이로 처리한 홍상삼은
팀이 6회말 4점을 뽐으며 승부를 뒤집은 덕에 승리
투수가 됐다.

29일 KT전에서는 홀드를 기록하며 고된 많은
KIA 불펜에 선택의 폭을 넓혀줬다.

홍상삼은 ‘젊은 마운드’의 조연을 자처한다.

그는 “시작이 좋다. 이제 불펜이 잘해야 한다. 나
는 뒤에서 보조하는 역할이다”며 “동생들이 워낙 잘
한다. 선배들한테도 잘한다. 잘 하고 잘 던지는 사
람이 나가는 것이다. 후배들이 잘 막고 해야 하니까
나는 지고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다림 끝에 올라온 1군 무대, 상황에 맞게 역활
을 하겠다는 각오다.

홍상삼은 “2군 성적도 안 좋고 계속 야구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승 이런 것은 신경 안 쓴다”며 “게
임 나가도 던지는 것만 신경 쓴다. 던지는 게 좋아서
언제 나가든 신경 안 쓴다. 나가서 던진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불넷에 대한 부담감은 없다. 오히려 상황에 맞게
불넷을 활용하겠다는 생각이다.

홍상삼은 “상황에 맞게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어
떻게 하면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생각한다. 위
기 상황에 나가다가 맞으면 대량 득점이 된다. 포볼
주더라도 최소 실점을 하자는 생각이다”고 언급했
다.

또 “나 있는 동안 승률이 7할 정도 되면 좋겠다
(웃음)”며 “뒤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서포트 하면서
가을야구 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홍상삼



류현진



김광현

류현진·김광현 내일 나란히 선발 등판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과 김광현(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이 올 시즌 처음으로 ‘같은 날’
빅리그 마운드에 오른다.

국내 야구팬들은 작년 9월 25일 류현진과 김광
현이 동반 선발승을 거뒀던 짜릿한 장면을 다시 떠
올린다.

류현진은 5일 오전 8시 7분 휴스턴 에스트로스
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이날 9시 15분에는
김광현이 신시내티 레즈와의 홈경기에 선발 투수
로 나선다.

국내 메이저리그 팬들이 기대했던 ‘한국인 좌완
삼총사’의 동반 선발 등판은 양현종(텍사스 레인
저스)이 불펜으로 이동하면서 무산됐다.

류현진은 강한 비바람을 뚫고 선발승을 거둔 5
월 29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전 이후 연세를 쉬고
서 마운드에 선다.

류현진은 올 시즌 10경기에서 5승 2패 평균자책
점 2.62를 기록 중이다.

세일런 필드에서는 지난해 9월 25일 뉴욕 양키
스전 이후 8개월여 만에 공을 던진다.

류현진은 지난해 세일런 필드에서 5경기에 등판
해 2승 평균자책점 2.10으로 잘 던졌다.

휴스턴과의 맞대결은 처음이지만 익숙한 선수
를 만날 수 있다.

휴스턴이 선발 로테이션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함께 뛰던 잭 그레이니

가 5일 토론토전에 선발 등판한다.
김광현은 일찌감치 5일 신시내티전 등판이 확정
됐다.

김광현은 올해 4월 24일 홈 경기에서 5.2이닝
동안 1실점으로 틀어막으며 올 시즌 첫 승을 거두
는 등 신시내티를 상대로 개인 통산 3경기에 등판
해 3승 평균자책점 0.54로 호투했다.

올 시즌 신시내티전 이후 6경기에서 승리를 추
가하지 못하고 3패만(시즌 성적 1승 3패 평균자책
점 3.65) 당한 김광현에게 5일 경기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지난해 류현진과 김광현은 총 4차례 같은 날에
선발 등판했다. /연합뉴스

미국여자프로농구서 2년 만에 ‘덩크슛’

피닉스 브리트니 그라이너
골밑에서 원핸드 덩크슛 성공

미국여자프로농구(WNBA)에서 2년 만에 덩
크슛이 나왔다. 지난 30일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에서 열린 2021 WNBA 정규리그 피닉스 머큐리
와 달러스 왕스의 경기에서 피닉스의 브리트니 그
라이너(31·206cm)가 4쿼터에 골밑에서 원핸드 덩
크슛을 터뜨렸다.

WNBA에서 덩크슛이 나온 것은 2019년 6월
역시 그라이너가 LA 스파크스와 경기에서 기록
한 이후 이번이 약 2년 만이다.

1997년 출범한 WNBA에서 지금까지 덩크슛
은 총 23개가 나와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그라이너가 혼자 15개를 터뜨려
WNBA의 ‘덩크왕’으로 군림하고 있다.

정규리그로만 한정하면 그라이너 외에 WNBA
에서 덩크슛을 터뜨린 선수가 리사 레슬리, 캔디

스 파커까지 3명이 전부다.
한국여자프로농구(WKBL)에서도 뛰었던 미
셸 스노와 존쿠엘 존스는 WNBA 올스타전에서
덩크슛을 작렬한 바 있다.

이날 덩크슛은 스카일라 디킨스 스미스의 패스
를 받은 그라이너가 골밑에 수비수가 없는 상태
에서 날아올라 원 핸드로 작렬했다.

NBA처럼 수비수와 함께 날아올라 터뜨리는 정
도의 덩크슛 장면은 WNBA에서 아직 나오지 않
았다. WKBL에서는 한때 덩크슛을 하면 3점을
주는 로컬룰을 운영하기도 했다.

2006년 여름리그에서 당시 청주 KB 소속 외국
인 선수 마리아 스테파노바가 WKBL 최초이자
유일한 덩크슛을 터뜨린 바 있다. /연합뉴스

허인회, 캐디 아내와 함께라면...

KPGA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압도적 승리로 32강 안착

허인회(34)가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
투어 대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총상금
8억원) 32강에 안착하며 시즌 2승 기대를 키웠
다.

허인회는 3일 경남 거제 드비치 골프클럽(파72
·7157야드)에서 열린 대회 64강전에서 권오상
(26)에게 2홀 남기고 3홀 차로 승리했다.

한 달 전 GS칼텍스 매경오픈에서 우승을 합작
한 아내 육은채(33) 씨가 이날도 허인회의 캐디로
나섰다.

돌은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좋은 호흡을 펼쳐
기분 좋은 첫 승을 일궜다.

허인회가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시즌 2승, 통산
5승을 달성한다.

문도엽(30)은 김동민(23)을 3홀 남기고 4홀 차
로 꺾었다.

올 시즌 개막전인 DB손해보험 프로미오픈에서
우승한 문도엽은 허인회와 함께 올해 첫 다승 경쟁
을 벌이게 됐다.

직전 대회인 KB금융 리브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문경준(39)은 이날 이대환(31)에게 2홀 남기고
3홀 차로 패하며 2연승에 실패했다.

KPGA 군산CC 오픈에서 생애 첫 승을 올리고
신인왕 부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동은(24)도 이
동민(36)에게 1홀 차로 패해 탈락했다.

이 대회는 KPGA 코리안투어 유일의 ‘매치플
레이’ 대회다. 4라운드 72홀 경기에서 가장 낮은
스코어를 기록한 선수가 우승하는 ‘스트로크플레이
’ 방식과 달리, 매치플레이는 1 대 1 대결 방식
으로 우승자를 정한다.

64강과 32강을 거쳐 추려진 16명의 선수는 조
별리그에서 다시 치열한 승부를 벌여 순위를 정한
다.

생애 두 번째 ‘매치킹’에 도전하는 선수들도 있
다.

2010년 이 대회 우승자 강경남(38)은 박배종
(35)을 3홀 남기고 4홀 차로 꺾었고, 2011년 챔피
언 홍순상(40)은 육태훈(23)을 1홀 차로 제압했
다. 2017년 우승자 김승혁(35)은 공태현(27)과



KPGA 코리안투어 대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
플레이에 출전한 허인회 선수와 캐디인 아내 육은
채 씨. /연합뉴스

연장전을 벌인 끝에 32강에 안착했다.

대상트 매치플레이에서는 이형준(29)만이 두
번(2015·2019년)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이형준
은 지난해 입대, 올해는 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제네시스 포인트와 상금 부분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 김주형(19)은 김재호(39)를 1홀 차로 꺾고
32강에 진출했다.

‘1번 시드’를 받은 김태훈(36)과 박상현
(38), 이태희(37)도 32강에 합류했다.

2020년 맹활약한 이재경(22)은 최이삭(41)을
연장전 끝에 제압하고 32강에 올랐지만, 김한별
(25)은 정상급(30)에게 3홀 차로 패했다.

/연합뉴스